



종자오리 DB교육 및 HPAI 예방대책

- ▶ 일시 : 2008년 8월 27일(수) 11:30~16:30
- ▶ 장소 : 대전상공회의소 2층 제1회의실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2)
- ▶ 식순(式順)
 - 11:00~11:30 : 접수 및 등록
 - 11:30~11:40 : 개회사(김만섭 회장)
 - 11:40~12:00 : 종자오리 DB사업 추진계획(조문규 국장)
 - 12:00~13:00 : 점심식사
 - 13:00~14:30 : 2008년 HPAI 발생역학분석과 대응전략(이상진 역학과장)
 - 14:30~15:30 : 오리산업 동향 및 정책방향(김영만 사무관)
 - 15:30~16:30 : DATA BASE 활용과 관리(김인석 상무)
 - 16:30 : 폐회(閉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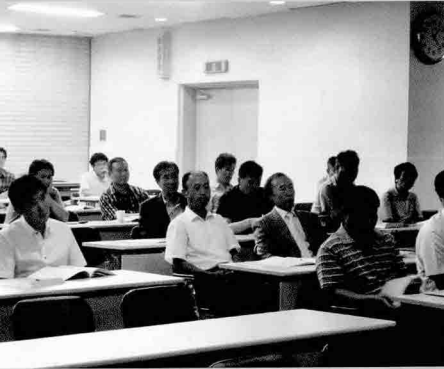




개회사 중인 김만섭 회장



조문규 국장이 종오리 DB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추진방향과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종오리 농장·부화장관련자들



이상진 과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이 올 봄 발생한 HPAI 피해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27일(수), 전국의 오리 사육 및 부화업자를 대상으로 종자오리 데이터베이스 교육과 HPAI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금번 교육행사는 종자오리 DATA BASE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사업의 대상으로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오리 사육업 및 부화업 관계자들이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만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봄 발생한 AI 여파와 사료값 폭등, 경기침체 등 많은 악재로 고통받고 있는 오리업 관계자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도 협회 경영정상화와 군납추진을 무사히 달성하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종자오리 DB사업에 있어서도 “종오리 부화 및 사육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

다면 성공할 수 없다”며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만섭 회장의 인사말에 뒤이어 조문규 국장의 종자오리 DB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방향과 세부추진 계획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조문규 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농장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고 말하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보고하고 협조하는 것만이 종오리 업계 뿐 아니라 오리업계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의 이상진 과장은 올 봄 발생한 AI 피해상황과 원인,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하면서도 비전문가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더 이상의 국내 AI 발생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가금농가 출입 제한, 외부 구입시 일정기간 격리 사육, 중추 구입 지양, 철저한 분노관리, 야생조류 출



김영만 사무관(농식품부 축산경영과)이 오리산업의 현황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종오리 사육과 부화업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식과 DB사업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는 김인석 상무(화인코리아)

입 방지조치 등 농가차원의 상시방역을 꾸준히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과장의 강연에 이어 오리산업 동향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한 김영만 사무관은 현재 오리산업이 축산업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역설하면서 오리산업이 주요축종과 대등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자구적인 생산비 절감 노력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영만 사무관은 또한 농식품부에서 오리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자오리 DB사업과 함께 오리산업이 보다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맡은 (주)화인코리아의 김인석 상무는 오랜 세월동안 종오리 사육과 부화업에 종사하며 쌓

아온 노하우로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주면서 “이제는 오리업도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은 지금 추진중인 종자오리 DB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리산업과 종오리 부화·사육업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석 상무는 “종자오리 DB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 개개인들이 이 DB사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농가의 협조가 가장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한 종오리 부화업 관련자들은 각각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았다.